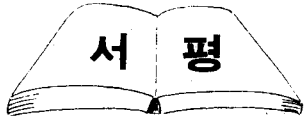


바른관점의한보수와혁신의각축장

동구권 변화국면 파악에 시사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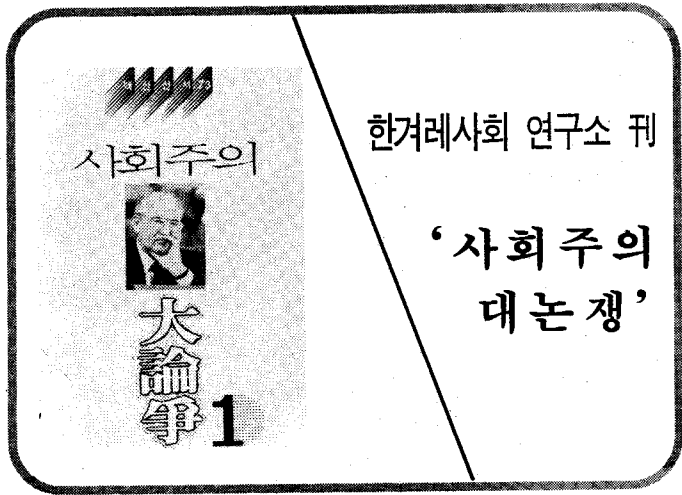
도 사회주의 개혁의 방향에 관해 사회주의의 소멸은 즉, 자본주의의 궁극적 승리라는 이데올로기적 해석 내지 사회주의의 온존장이라는 정반대의 해석과 관점이 대립하고 있고 양 관점 내부에서도 그 구체성에 있어 매우 커다란 시각의 차이를 노출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권에 대한 축적된 연구성과와 정확하고 신속한 사실확인의 부재에 일부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제1부는 사회주의의 이념과 일반 노선에 대한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클라트노스 트에 관한 최초의 공적논쟁인 보수파의 안드레아와 그에 대한 프라우다의 비판,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와 새로운 사회주의이념의 필요성에 관한 코사코프의 커뮤니스트지 편집부의 논쟁, 그리고 볼라시 공산당 정치국원인 그레메츠의 미래는 착취적 자본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적 사회주의에 있다'는 논지가 소개되어 있다.

제2부는 사회주의경제개혁, 특히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여부를 둘러싼 논쟁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수파의 견해를 대변하는 세르게예프는 시장경제를 비판하면서 전통적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코자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개혁파의 주류의 일원인 아발킨은 세르게예프의 주장은 관료적인 중앙집권체제를 고수, 복원코자 하는 음모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장경제는 실천적 관심의 다양성과 이질성 때문에 매우 상이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제3부는 정치개혁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보수·개혁파 사이의 논쟁 뿐 아니라 양파 내부의 노선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비테의 '보수·개혁·급진파의 논리'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당면과제를

공격하지만 변혁논리를 이념, 정치, 경제의 세 영역으로 한정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 특히 문화적 측면의 확대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사회체제의 개혁에



문화적 측면 포함한 변혁논리의 확대 요청돼 근대이후 인간역사의 새로운 단계로 이해해야

즉 대통령제의 도입, 소련공산당의 개혁, 당권형 개정을 둘러싼 보수·개혁·급진파의 논쟁을 구체적인 자료로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전반적인 의도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격과 그 진로에 대한 소련 내부의 논쟁을 소개하는 것이며, 수록된 논문과 자료들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의 변화국면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소개되어 있는 논문들은 사회주의개혁의 논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에 실제로 그 개혁의 논리가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개혁의 방향은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정치투쟁 속에서 판가름될 수 있는 것이다.

있어서, 개혁 필요성의 인식 또는 그 인정이란 부분은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정한 생활방식의 선호, 국민들의 가치관 등의 고려없이 체제의 성공, 실패 또는 우열을 판단하기는 힘든 것이다. 또 사회주의권 개혁을 근대 이후 인간 역사의 새로운 단계로 파악하는 관점도 필요하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고안, 재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의 하나만으로는 근대 이후의 신념이 역사적인 실험에서 일단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 교황 바오로 2세의 헝가리 방문시의 제2의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역사상 계속 시도되어왔던 인간의 완전한 자기실현을 위한 가치 방상이었던 사회주의의 마차 집합적인 인간노력으로 낙원

에 도달하고자 시도했던 것의 상징인 바벨탑처럼 붕괴했다는 것이다. 즉 근대의 끝 혹은 마지막 장이 바로 사회주의의 위기대지 변혁이란 것이다. 이는 근대의 또 다른 산물이었다 민족국가와 최초로 등장했던 서구문화와 지역에 민족국가의 해체인 구공공체제의 등장에서처럼 근대의 여러 산물과 신념들이 붕괴되는 현상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이후 어떤 이념이 인류 전체의 미래전망을 제시할 수 있었는가를 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의 제모순을 비판하고 사회변혁의 보편적 방향을 제시해온 사회주의를 대체할 이념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재건이란 의미의 말인 것 처럼 사회주의 개혁은 재구성 상단부분이 사회주의의 이념의 쇄신을 통한 사회주의의 재건이지만 사회주의가 인류의

보편적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으로 보인다. 혹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수렴 소위 사회민주주의를 제시하지만 사회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는 북유럽국가의 모습들로 보아 인류 미래의 이념으로는 적합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겠다.

사회주의권 변혁의 방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여러 시각들의 대부분은 사회주의의 국가 자체, 혹은 자본주의와의 대결구도 속에서 논쟁점을 추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보다 광범위하게 인류 전체의 모습과 전망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의 모색과 함께 그 논쟁이 시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성현이던 공적적인 목적을 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영학

(덕성여대 강사·정치학)

현대 미술의 두 방향



강대석
(호성여대 교수·철학)

미적 현상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학문인 미술의 과제는 현실의 미적인 습득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밝히는 데 있다. 현실을 미적으로 습득하는 일은 그러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를 배경에 깔고 있다.

현실의 인식을 기초로 하는 세계관의 문제를 다루면서 철학은 크게 유물론적 방향과 관념론적 방향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하는 물질세계를 인정하고 이러한 물질세계의 반영에 의하여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물질세계를 원리부터 존재하는 객관적인 정신세계의 부산물 또는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에 의존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한다.

미학도 그것이 배경에 깔고 있는 세계관적인 차이에 따라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유물론적 미학과 관념론적 미학이다. 현대미술의 방향도 예외일 수 없다. 현대미술의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류를

시간적인 진리를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데아나 절대정신을 내세우는 플라톤이나 헤겔뿐만 아니라 실존철학자들인 야스퍼스나 하이데거도 예술을 형이상학적으로 파악한다. 야스퍼스에 의하면 예술은 초월자의 원인 암호를 해독해가는 방식이다. 하이데거는 예술의 과제를 존재의 진리를 구축하는 데서 찾는다.

19세기 말엽에 강세를 보인 심리학적 미학은 형이상학적 미학의 사변성이나 규범성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사실들의 미적 경험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페터너는 그것을 '하대로부터의 미학'이라 불렀다. 미적 습득이나 예술파악에서 주관의 심리학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의 방법만을 절대화시킬 때 이들은 필연적으로 주관적 관념론의 오류에 빠진다.

현대미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관념론 철학의 하나가 현상학이다. 모든 편견을 괄외한에 묶여버리고 사실자체로

◇미학입문을 위한 시리즈(完)

공동체 삶과 독창적 예술사이의 틈

유물론...美는 사회적 이상과 현실의 접점

이루고 있는 유물론을 기초로 하는 맑스-레닌주의 미학이든 다른 하나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념론적 미학이다. 여기에는 형이상학적 미학, 심리학적 미학, 현상학적 미학, 분석미학 등이 속한다.

유물론적 미학은 인간의 의식이 물질세계의 반영이며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은 예술활동 그 사회의 하부구조 즉 생산관계에 의존하여 발생하고 발전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미나 예술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서 역사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을 철저하게 강조한다. 예컨대 유물론적 미학은 미의 본질을 사회적 이상과 실제 현실의 일치 여부에서 찾는다. 미의 본질은 미적 대상의 형식이나 내용, 혹은 미를 인식하는 주관의 심리상태로부터 추출되지 않는다. 자연과 사회는 항상 자체의 모습에 의해서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변화한다. 인간의 미감은 변화되는 사회조건에 따라 인간이 내세우는 이상과 현실이 접합하는 곳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미감도 달라진다. 예컨대 봉건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미인상이 같을 수 없으며 서양의 미인상과 동양의 미

이 반대한다. 물론 유물론적 미학도 예술의 상대적인 독창성 및 그것이 물질세계에 미치는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철저한 유물론은 변증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예술이 현실변혁에 미치는 작용 때문에 맑스-레닌주의 미학은 예술의 당파성과 계급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예술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취위가 사라지는 사회의 건설을 위한 중요한 무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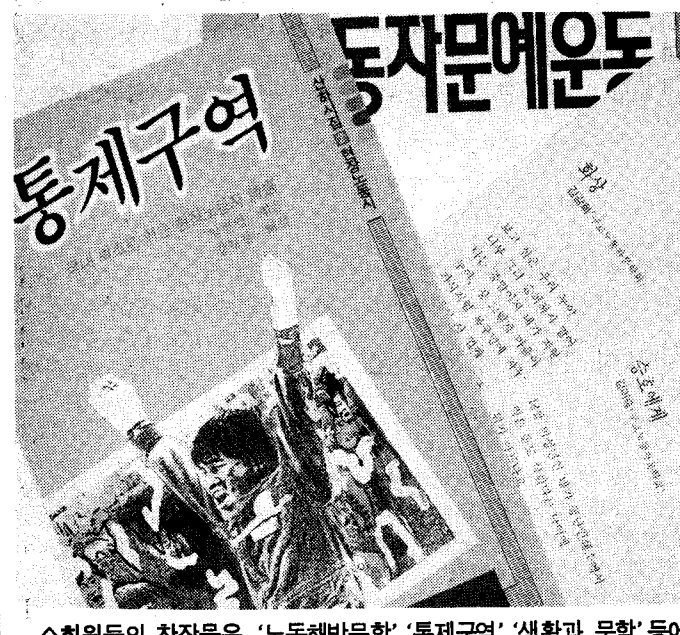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물론적 미학은 진보적인 소시민적 지식인들에 의해서 다소 변형된 모습으로 예술사회학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다. 관념론적 미학은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 혹은 인간을 떠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의 형식이나 정신적 가치들이 물질세계에 앞서거나 그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미와 예술의 본질을 해명하려 한다. 형이상학적인 미학은 초월적이고 선형적인 가치를 미나 예술과 연결시킨다. 이들에 의하면 감성적으로 지각되는 현실 존재와 다룬 의미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비현실존재의 결합이 예술의 비밀이다. 예술은 영원하고 초

나일 것들을 강조하는 현상학의 방법이 본질적이다. 예술 파악에서도 예술의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들어선다. 그러나 본질직관이란 매우 신비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예술을 포함한 모든 대상의 본질을 포착한 순간의 상호관계 속에서만 성립한다.

현대 영미의 분석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분석미학은 미의 문제나 예술의 문제를 개별적인 사실 자체로 지나치게 축소시키면서 그와 관계되는 언어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서 만족하려 한다. 심리학적, 현상학적, 분석적 미학 경향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관념론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한 채 미현상이나 예술 현상을 고정·비현상적으로 파악하고 그 전체적인 연관성 즉 역사성이나 사회성을 소홀히 다루는 데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현대미술의 과제는 역사성과 사회성을 어떻게 예술의 독창성과 결합시켜 파악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현대미학' 편을 끝으로 미학의 세부 내용과 역사를 다루었던 본 시리즈는 마감합니다



◇회원들의 창작물은 '노동해방문학' '통제구역' '생활과 문학'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가리봉동 오거리의 한 골목에서 찾은 구로노동자문화회는 언뜻 보기에는 어느 사무실과 다를바 없었었다. 약속된 학습시간인 밤 9시가 가까와오자 서서히 방을 메우는 책을 든 노동자들속에서 비로소 노동자문화회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노동해방문학'에서 읽었던 몇권의 시, 작품과 굵은 자국을 찍은 시, 작품과 막연히 상상했던 노동자 시인들의 모습은 훨씬 더 평범하면서도, 한겨레 신문 1부를 쏙 빼놓은 활기찬 모습이었다.

구로노동자문화회의 창립은 지난 88년 6월, 우선 문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독서회, 도서대출사업등을 시작해 나갔다고 한다. '다양한 대중조직의 마련을 시도하다가 문예에 의한 대중운동 모색에 나섰던 거죠. 처음엔 낮은 단계인 관심풀기부터 해나갔습니다.'라고 문화회를 꾸민 유시주씨는 회상했다. 이때의 문화회 상황은 회원들이 뽑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유인진씨였다는 사실이 잘 말해줄 것이다.



문예와 변혁운동이 만난 구로노동자문화회

지금 문예교실을 통해 모인 회원들이 창작반, 학습반으로 나뉘어 좀더 전문적인 문예교육의 틀을 꾸려나가고 있다. 1주일에 두번 갖는 작품토론과 학습들을 통해 전문적인 창작활동이 이뤄지며, 회지 '생활과 문학'도 계속 발간하고 있다. 이것을 유시주씨는 '중심역량의 강화'라고 표현했다.

늘 궁궐에왔던 문예와 운동의 결합성에 대한 질문에 '문예와 운동은 사람의 실천에 의해 이뤄진다고 보면,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것 아니요?'라는 유시주씨의 반문을 되짚어보면 문득 지난 봄 어느해에서 보았던 구로노동자문화회원 하인봉씨의 말을 생각했다.

"1년반동안 저희 문화회가 거둔 가장 확실한 성과는 막연히 '올바르게 살고 싶다'라는 지향만을 지니고 있던 노동자들이 모여 '이제는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사상적·조직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랄 수 있습니다."

〈銘〉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첨단기술을 고객과 나눠 갖는다

이것이 금성컴퓨터의 정신입니다.

세계 굴지의 컴퓨터업체는 물론 학계를 통한 최신 컴퓨터 및 정보 습득에 한한 소홀함이 없는 금성 컴퓨터에 관한 당사 소유의 모든 것을 고객과 나눠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성능별 다양한 컴퓨터기기, 다년간 축적해 온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기술력도 고객상장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관한 한 금성을 찾아주세요.

금성의 토털솔루션은 앞선 기술력과 변함없는 정성으로 컴퓨터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금성 초대형 컴퓨터
MS-DOS 6.22, 630, 640, 660, 680, DPS8000 시리즈
- 금성 중·소형 컴퓨터
DPS6000 시리즈 (M200, 400, 600), 행방 주전산기
- 금성 초소형 컴퓨터
GS-8000, GS-8800 시리즈
- 금성 워크스테이션
SUN 4 시리즈
- 병렬시스템
병렬터미널, CD, ATM, 세신기기

금성컴퓨터

금성사

■ 금성사 컴퓨터영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75-1 (금성빌딩 4층)
전화: 02-705-3311 ~ 3316
■ 부산지사: 051-856-4701 ~ 4702
■ 광주지사: 062-571-8717
■ 금성사 상무: 02-705-3500